

전체 주제:

이사야서에 있는 신성한 영론

메시지 33

복음—은혜의 회년이신 그리스도—을 살고 선포함

성경: 사 61:1-2상, 눅4:16-22, 행26:18

I. 레위기 25장 8절-17절에 있는 회년은 이사야 61장 1절-2절 상반절에 예언으로 기록되었고 누가복음 4장 16절-22절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.

- A. 회년에는 두 가지 주된 축복이 있다. 그것은 각 사람이 자기가 잃어버렸던 소유로 돌아오는 것이고 노예 됨에서 해방되는 것이다—레25:8-17.
- B. 히브리어로 ‘회년’ 이라는 말은 ‘기쁨에 찬 소리, 나팔소리와 함께 외침, 선포’ 를 의미한다. 이는 슬픔이나 애곡 아닌 복음, 즉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다—눅2:10-11.
- C. 회년은 은혜의 시대, 즉 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그분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안으로 분배되시는 시대이다—4:22, 시45:2, 요1:14-17.
- D. 신약의 회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황홀경의 시대이다—참조 고후5:13-15, 6:2.

II. 누가복음 4장에 있는 회년의 선포는 누가복음 전체의 중심 사상을 지배하며,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는 회년에 대한 탁월한 예이다—11-32절.

- A. 탕자는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의 재산과 자기 자신을 팔았다—13-16절.
 - 1.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다. 인생의 참된 상태는 헛되고도 헛되며, 공허하고도 공허하여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—시90:10, 73:14, 16-17, 25, 전1:2-11, 14.
 - 2. 오늘날 타락된 사람들에게는 참된 거처가 없다. 그들은 집 없이 표류하며 방황하는데,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참된 거처이시기 때문이다—시90:1, 창28:17-19, 요15:4, 마11:28.
 - 3. 사람의 타락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타락한 것이다.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재산과 누림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—시16:5, 롬9:21-23, 엡2:12.
 - 4. 또한 타락한 사람들은 그들의 지체를 죄에게 팔아 죄의 노예들이 되었다—롬7:14, 6:19.
- B. 어느 날 탕자는 그의 재산과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. 그것이 회년, 해방이었고, 모든 것이 유쾌하고 만족스런 것이 되었다—눅15:20, 24, 참조 레25:11.
 - 1.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기업으로 돌아오는 것,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며, 하나님께로 되돌아와 우리의 재산이신 그분을 새로 누리는 것이다—엡1:13-14.
 - 2. 우리가 하나님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갖는 것이다.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것도 없다—찬송가 701장.
 - 3. 우리는 반드시 참 회년이신 주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한다. 우리에게 그분이 있으면

우리에게는 우리의 재산이신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 건져져 참된 자유와 안식을 가질 수 있다—행26:18, 엡1:14, 골1:12, 마11:28.

4.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많은 이들이 빛을 내지 못하는 빛들과 같은데, 그것은 다 그들의 분깃인 하나님을 취함으로 ‘스위치를 켜지’ 않기 때문이다—엡4:18, 참조 빌2:12-16.

III. 회년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생활, 우리의 기업이요 참된 자유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생활이다—행26:18, 요8:36.

- A. 회년에는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유쾌하고 만족스러우며, 우리는 근심에서 해방되어 편안하고 즐겁다. 그러므로 모든 것이 우리를 만족케 한다.
- B. 그리스도인이 안식을 누리는 비결은 누림이신 하나님을 얻는 것이다.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면 모든 것이 우리를 만족케 한다.
 1. 바울은 회년 안에서 사는 비결, 어떤 환경에서나 그리스도를 얻는 비결을 배웠다—빌4:5-7, 11-13.
 2. 우리가 우리의 누림이신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얻은 후에만 모든 것이 우리를 만족케 할 수 있다. 우리가 모든 종류의 상황에 직면할 때 바깥의 사람들이나 일들이나 물건들 아닌 안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침착하게 하고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다—요16:33.
 3.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분은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의 회년이 되시지만,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도록 허락하지 않고 우리가 그분에 의해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회년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—8:11-12.
 4.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아닌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나 일에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이며 그 끝은 비참한 것이다—요일5:21, 참조 겔14:3, 5, 6:9.
- C. 회년의 생활은 우리가 우리의 누림으로 다른 것들 대신 하나님을 취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누리는 삶이다. 그럴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과 중심이 되시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지배하신다—요6:16-21, 골1:17하, 18하.
- D. 우리의 재산은 하나님이시오,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림에서 온다. 자유란 모든 속박, 모든 무거운 짐, 모든 압제, 모든 노예 노릇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—참조 고전6:12.
 1. 회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의 빈곤과 포로 됨과 눈 멀고 압제에서 자유케 하신다—전3:11, 빌3:8, 벧후2:22, 눅12:21, 계3:17.
 2. 우리는 생명 주는 영, 생명의 영의 법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에 의해서만 해방되어 참 자유를 가질 수 있다—롬7:24, 8:2.
 - a. 하나님을 누리는 이들만이 죄 짓는 것을 일삼지 않고 참으로 자유하다—요8:11-12, 24, 28, 31-36.
 - b.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지 않는다면 여잔히 많은 것들에게 속박되어 있을 것이고, 결심을 해도 되지 않을 것이다.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살아 계시는 주님을 접촉함으로 그분을 누리기를 배워야 한다—참조 4:24, 고전1:9.

IV.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성취를 위해 복음—은혜의 회년이신 그리스도—을 살고 전파함으로 오늘날의 사역자들과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—행26:16-19.